

제목

대만 지진 발생과 경제적 영향

- ◆ 대만에서 4.3일 발생한 지진(진도 7.3)의 영향으로 대표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영향 우려 확대

[지진 발생]

- 2024.4.3일 7시 58분 대만 화리엔현(花蓮縣)에서 23km 떨어진 해역에서 **진도 7.3의 지진**이 발생(북위 23.81도, 동경 121.74도)
 - 4.3일 오후 현재 인명 피해는 7명 사망, 711명 부상이며 약 8만여 가구가 단전 상태
 - 이번 지진은 1999.9.21일 발생했던 ‘9·21 남투지진(南投地震)*’ 이후 **25년 만에 대만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**로 기록
- * 대만 남투현(南投縣)에서 발생한 진도 7.6의 강진으로 당시 2,400여 명이 사망하고 11,000여 명의 부상자 발생

대만 지진 발생 지역(화리엔현 남쪽)



출처: Bloomberg

[경제적 영향]

- 현재까지는 **영향이 제한적**이지만, 여진 지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우려 고조
 - 대만 최대 반도체업체 중 하나인 TSMC*는 오늘 직원 안전 등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
 - *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(2023년 1분기 기준, %)
 - ▶ TSMC 59, ▶ 삼성전자 13, ▶ 글로벌 파운드리 7, ▶ UMC 6, ▶ SMIC 5
 -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**생산 차질**은 2분기 중 약 **6천만 달러**로 추정 (Bloomberg)되는 등 제한적
 - 대만에 상장해 있는 TSMC 주가는 **1.3% 하락**으로 마감
 - 한편, TSMC 이외에 UMC, Innolux 등 대만의 여타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점검 등을 위해 시설을 일부 중단했으나 아직까지 생산차질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
- 향후 3일 이내 진도 7 내외의 지진이 수 차례 추가 발생할 가능성(대만 기상부) 등을 감안하면 **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**
 - '9·21 남투지진(南投地震)'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92억 달러로 당시 대만 GDP의 3.3%로 추정
 - TSMC 등 주요 기업의 생산 추가 중단이 초래될 경우 **글로벌 반도체 산업**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